

# 우한 폐렴 비상인데...무개념 음주단속

### 음주감지기 소독 안한 채 사용 논란...지역민들 “어이없다” 감염예방 시스템 가동 안돼...“경찰청 지침 없다” 변명만

광주시 서구에 살고있는 회사원 A(38)씨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밤 모처럼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도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무작정 들이댄 음주감지기에 자신의 입술이 닿았기 때문이다.

이날 술을 마시지 않았던 A씨는 “우한 폐렴으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데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한다며 약품소독 등도 없이 타인의 침 등이 묻은 음주감지기를 들이댔다”면서 “감지기를 부는 과정에서 입술이

닿았고, 아직도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경찰청이 지역 내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능동감시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도, ‘경찰청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감염병 전염 우려가 높은 음주단속 방식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선 전염병 발생 시기는 물론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음주단속기 소독 등 위생적인 음주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

청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나선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도심 곳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서 광주 68건, 전남 52건 등 총 120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음주단속 과정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예방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아 일부 지역민의 불만을 샀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사태’ 때만 해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음주감지기 대신 선별적으로 1회용 필터를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음주 측정기를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시스템을 가동했었다.

광주의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

다”면서 “추가 지침이 없는 한 감염 예방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고 다닌다”는 직장인 나영민(45·광주시 남구)씨는 “언론을 보니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과하다 할 정도로 ‘우한 폐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경찰의 음주단속 행위를 보니 너무 무사안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일보 취재 이후) 자체적으로 내부 통신망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음주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도박 빚 갚아줘” 외할머니 폭행 ‘패륜 손자’

### 광주북부경찰, 20대 입건

어린 시절부터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길러준 외할머니를 설 명절에 폭행한 철없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8일 빚을 갚아달라며 외할머니를 폭행한 A(20)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씨는 설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시 북구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70대 외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 컴퓨터를 던져 외할머니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860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외할머니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외할머니는 그동안 불법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린시절 부모가 이혼한 이후부터 외할머니와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할머니를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선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피해자 스마트워치(긴급 출동 연계) 지급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제2의 광주 클럽 붕괴 사고 막아라”

### 지자체 표준조례에 안전기준 항목 추가...신종업소 영업허가제 시행

정부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클럽’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잇따르고 있는 신종업소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스크린아우징이나 키즈카페, 방탈출 카페 등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

함시키고 새로 등장하는 업종에는 영업허가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업소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클럽 등 감성주점과 관련해 지자체 표준

조례에 안전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생부서에서 설계도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부처별로 하는 신종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스크린아우징·양궁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등 업종을 추가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앞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유사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면 ‘영업허가제’를 새로 시행한다. 소관부처가 없는 신종업소는 세무관서 사업등록 이전에 소방서로부터 시설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는 업종의 경우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또 다른 ‘안전 공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악취 민원 제기한 이웃 위자료 소송...대법 ‘배상책임 없다’

이웃집 거주자의 악취민원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위자료를 달라’며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측은 2018년 5월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5년 전부터 생활 악취가 나니 그 원인을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이 같은 달 A씨 집을 방문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달라는 행

정 지도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 측을 상대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심한 악취가 난다는 허위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으로부터 방문 조사를 받게 했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민원이 허위라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설 연휴 쓰레기 수거 분주  
설 명절 연휴가 끝난 28일 광주시 서구 품암동 주민자치회원들이 품암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인도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출근 첫날 돈 훔쳐 튄 편의점 알바생

### 광주광산경찰, 20대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28일 아르바이트 첫날 금품을 훔쳐 달아난 A(28)씨를 준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225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편의점에 첫 출근한 뒤 퇴근 무렵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에 있던 편의점 주인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편의점 내부 CCTV를 보면 중 A씨가 불건을 훔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자, 때 마침 가게 인근에 있던 건물주

에게 B씨의 절도행위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A씨는 금품을 훔쳐 가게를 빠져나오던 중 건물주가 자신을 막아 서자 우산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달아나려 했지만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광주시 서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주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특이나 장사도 안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난사고까지 당하고 하니 장사할 의욕마저 없어졌다”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공장서 홀로 일하던 근로자 원통형 기계에 끼여 숨져

28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환풍기 자재를 만드는 제조업체 공장서 근로자 A(30)씨가 기계에 끼여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광주북부경찰조사결과 이 업체에는 사장과 여직원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날은 A씨는 혼자 일하다 원통형 기계에 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A씨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업체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상인 바쁜 틈 타 돈 ‘슬쩍’

군산경찰은 “전통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군산의 한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이 계산하는 틈을 노려 3회에 걸쳐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시장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인 권 보호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따뜻한 겨울 날씨에...무등산 북방산개구리 한달이나 일찍 산란

○·겨울철 때아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자 무등산에서 동면을 하고 있던 북방산개구리가 한달이나 일찍 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은 것으로 관측.

○·28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기후변화로 계절활동·분포역 등이 변화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종)인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이 지난해 관측 일(3월 1일) 보다 무려 37일이나 빠른 지난 24일 장물재 습지(화순방향)에서 관측

됐다는 것.

○·북방산개구리는 일정한 기간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고 비가 내리면 산란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관계자는 “겨울잠을 자야할 북방산개구리가 일찍 깨어나 산란을 할 경우 급속스런 추위로 동사할 위험성이 커진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등 무등산 내 양서류 서식지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러시아산  
Siberian Chaga  
**시베리안 차가버섯**  
100% 동결건조 농축분말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